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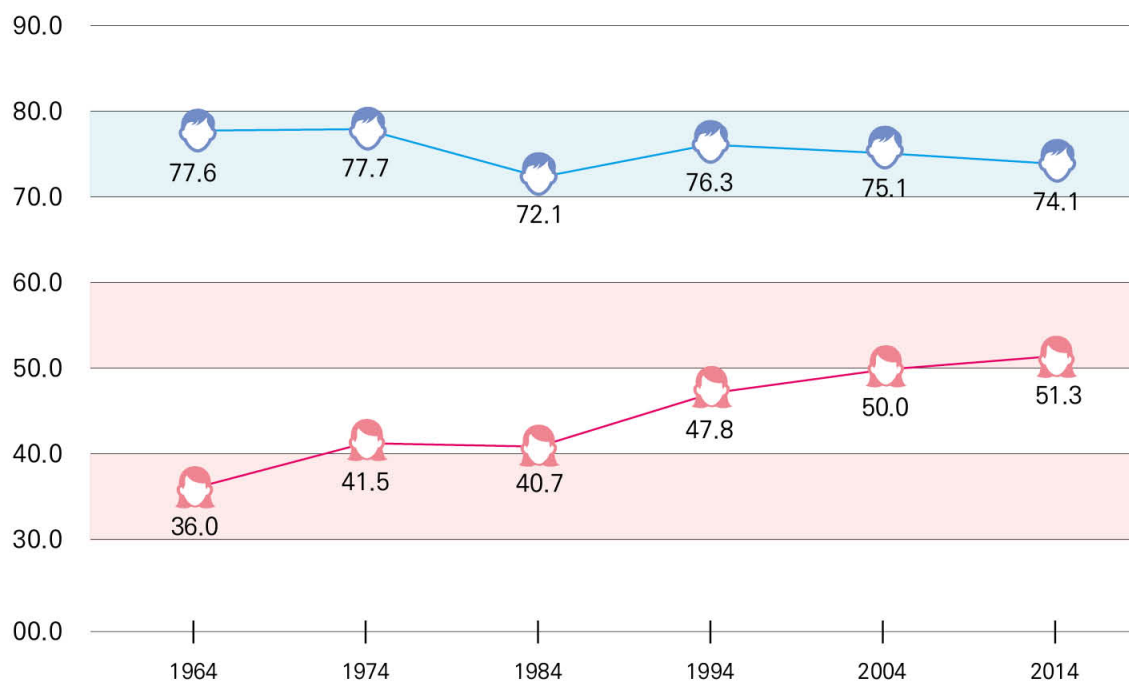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안전보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2명으로 2001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사회에 들어섰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미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참가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여성의 참가율은 90년대 들어와서 눈에 띄게 높아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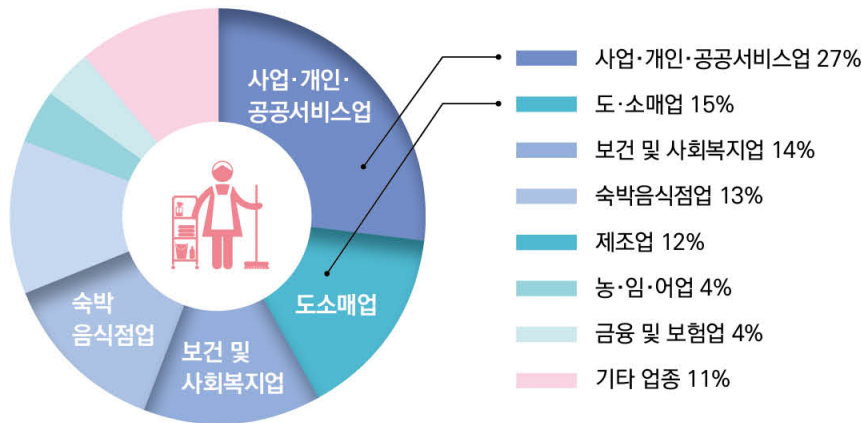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성별 경제활동 인구총괄(1963 ~ 2014)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여성근로자의 종사업종 현황

여성근로자의 취업현황을 2017년 기준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분야에 27%로 종사하고 있으며, 그 뒤를 잇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 여러 서비스업 분야에 많은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 출처 : 통계청, 성/산업별 취업자(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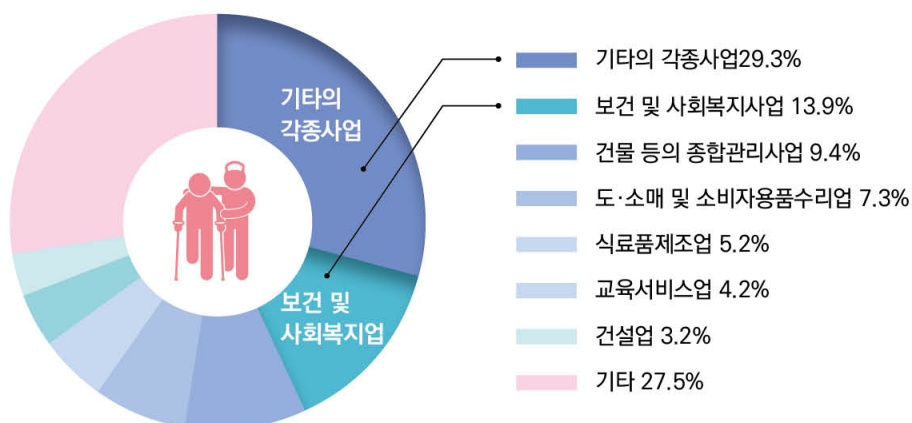
여성근로자의 재해 발생 현황

업종별 산업재해

최근 3년간(15~17년) 여성근로자의 업종별 재해 현황을 보면 기타의 각종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한다.

이는 여성근로자가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기타의 각종사업의 하위 업종에서는 음식 및 숙박업에서 재해 비율이 가장 높는데, 식료품 제조업 재해 비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리 직종에서 여성근로자 재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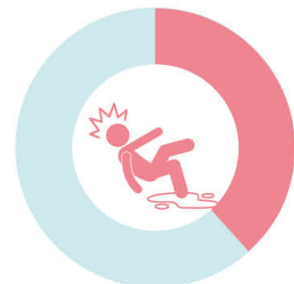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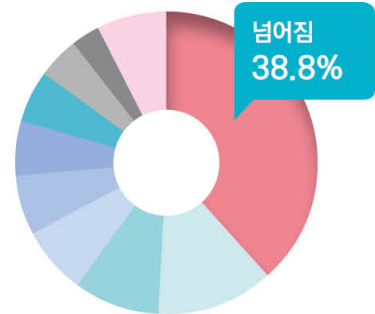
* 출처 : 15~17년 산재현황통계 기준



발생형태별 산업 재해

최근 3년간(15~17년) 여성근로자의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 재해가 전체 재해의 38.8%를 차지하며, 이는 대부분 음식업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끼임, 이상온도 접촉 등의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 출처 : 15~17년 산재현황통계 기준



넘어짐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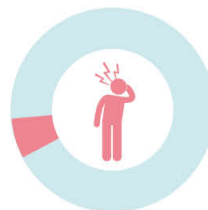
끼임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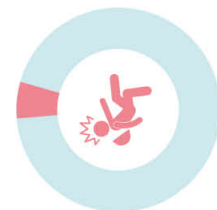
이상온도 접촉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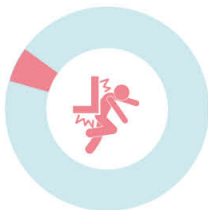
절단·베임·찔림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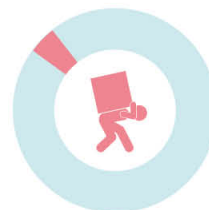
작업관련 질병(뇌심 등)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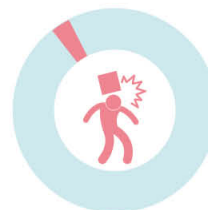
떨어짐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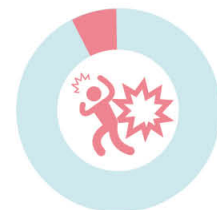
부딪힘 5.5%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4%



물체에 맞음 3.2%



기타 7.3%



여성근로자의 특성

여성은 신체적·생리적으로 남성과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공정과 기계의 구조는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모성 기능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맞는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의 체격과 신체구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키는 약 10cm 작고, 체중은 5kg 정도 적다.

다리는 짧고 골반이 커서 신체 중심이 남성보다 아래에 있어 활발한 움직임이 불리하다.

손은 남성보다 9% 짧고, 12% 좁으며, 15% 가늘어서 섬세하고 세밀한 일에 유리하다. 피하지방이 많으며, 골격과 근육의 발달이 남자보다 약하다.

심장과 폐의 기능, 혈액 내 혈색소의 양 등 생리적인 면에서도 남성보다 떨어지므로 같은 일을 해도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여성은 또한 복부 내장의 중력을 받쳐주는 회음부의 지지력이 약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을 계속하면 내장 하수, 자궁하수가 나타날 수 있다. 장시간 서서 일할 때는 다리에 울혈, 정맥류가 생길 수 있고, 생리불순을 초래할 수 있다.



작업환경 적응 능력

여성은 남성보다 피하지방이 많은 반면 체표면적과 순환 혈액량은 적어서 체온 조절이 불리하다. 따라서 고온 하에서 장시간 일하게 되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일사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전신 진동은 회음부의 혈액 순환 장애와 월경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임신 중 전신 진동작업은 유산, 조산, 신생아 사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생애 주기별 여성근로자 건강관리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 환경과 심리적 특성 때문에 특정 질병에 대해 남성보다 취약하므로 주기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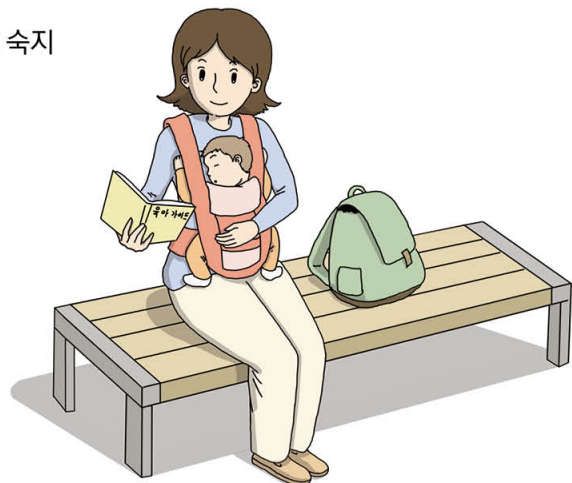
미혼기

- 아침식사 결식률이 전 생애 주기 중 가장 높아 위염·소화궤양, 만성변비,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식습관 개선
- 체중 조절에 관심이 많아 운동 실천율이 타 생애 주기보다 높으므로 지속적인 운동 실천으로 적정 체중 유지
- 우울·스트레스 인지 정도, 자살 사고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출산양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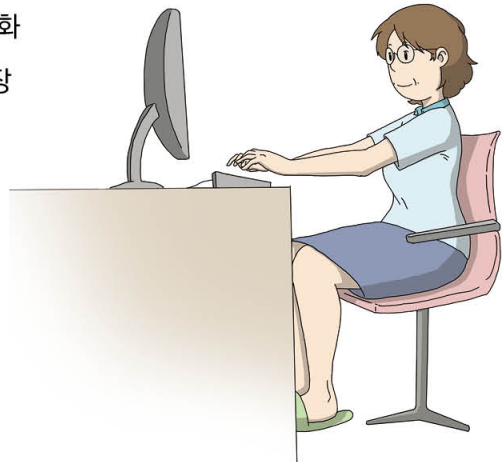
-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의 병행으로 따로 운동할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장 내 운동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으며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므로 체중이 그대로 남아 비만이 되지 않도록 식습관 개선 및 운동 실천
- 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숙지
-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및 교육
- 요통·좌골통, 관절염 등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예방





중년기

- 근골격계질환,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유산소 운동 실시
-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기 쉬운 연령으로, 직장 내외의 사회적 지지체계(동료, 가족 등) 강화
-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시기로, 사업장 차원에서 작업자세와 작업조건 등 개선 필요
- 작업환경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악성종양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 여성 다발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 실시



고령기

- 생애 주기 중 사회적 지지가 가장 약한 시기로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외의 사회적 지지(동료, 가족) 강화 필요
-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은 시기로 작업 자세, 작업조건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체조 및 스트레칭, 적절한 체중 유지, 비만관리 등 실시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기초질환 예방
- 사업장에서는 조명은 밝게 하고, 청각 신호 보다는 청각과 시각 신호를 동시에 사용
- 여성 근로자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눈높이 교육을 하며, 가능한 개별교육과 실습을 많이 하고, 교재 글씨는 크게, 교육 속도는 천천히,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교육 실시

